



Archdiocese
of Toronto

Catholic Pastoral Centre
1155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4T 1W2
T 416.934.0606
www.archtoronto.org

예수님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네 참으로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남과의 평등한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분은 성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과 하느님의 삶이신 너그러운 사랑으로 이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그러움의 영성,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영성이며 그분의 경우에는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관심사만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힐 때는 꼼짝없이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따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적으로 형성된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찾습니다.

저는, 집의 문 옆에 “하느님이 첫째, 내 이웃이 둘째, 그리고 나는 셋째입니다”라고 쓴 문구를 붙여 놓았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 그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자아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갖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욕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삶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자책스럽게 말했듯이, “우리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아주 보잘것없는 꾸러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자신을 찾는” 그런 종류의 자아는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바로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동산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니를 위해서 정원 전체를 통제하기를 위해”

그것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여 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죄의 인간 조건에 깊이 빠져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위해”라는 자기 중심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미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복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최악의 비참함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불행과 외로움의 섬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독한 사람들이요, 이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존 단이 말했듯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 홀로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숙고하며 그 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제자로서의 삶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1 독서지혜서는(자혜2.12.17-20)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아닌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운 분인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분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너그러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존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성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기심과 이기적인 아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야고3,16). 마음의 혼란과 공동체의 혼란이요 모든 이들이 첫째가 되고자 할 때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혜 곧 진실되고 평화로우며, 너그럽고, 가까이 포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자비로 가득찬 마음과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는 좋은 열매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알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야고3,17-18).

그분이 말하시는 여러분 사이에 있는 갈등과 논쟁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당시에는 초대 교회 시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전쟁과 혁명과 모든 종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황금기가 아니었지요. 시작할 때부터 원초는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이기심 없는 사랑인 그리스도의 초대애 의해 그것과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의 자치인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을 갈망하다가 얻지 못하면 분쟁을 일으킵니다(야고4, 1-2). 실제로 그런 종류의 이기심은 각 본당, 더 큰 지역 사회, 우리들 각자의 마음, 우리 가족들 간에 모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자아는 항상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동선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를 위해 도움이 될까? 가 아닌, “전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삶이 될 우리 자신의 삶을 찾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요”라고 말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개인적이든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 자신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이익을 찾고 있을 때는 공동선을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동선을 찾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평화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서의 예언자같은 사람을 마르코 복음에서도 봅니다(마르9.30-37)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치유시키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기심과 자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누가 제 일꾼인가? 누가 첫째인가? 누가 제일 먼저 최고 자리에 이르게 될까를 놓고 싸웁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제자들의 자기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르9,35). 우리들 모두 모든 이들의 종이 되라는 불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게 되고 행복과 삶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직 영성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인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아니며 주인의 소유물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재능,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능력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조차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주인을 만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자에게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렸나? 얼마나 성공했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올라갔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나? 이웃을 자식처럼 사랑했나? 우리들에게 맡긴 시간을 훌륭하게 관리했나?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 연연해 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영성을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단지 종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보물을 맡기시고 그것이 무엇인데 간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청하십니다(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자 받은 은총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이용해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충만하게, 청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했던 사도들처럼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 보다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데 자기에 그 선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받은 은총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선택 관리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 은총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동료 관리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너그러운 선물인 내 시간에 나 자신을 잊고 그 무엇보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단지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은 물론,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전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내 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은총, 특히 이 세상에서의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충실한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나 자신 지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공동체는 성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모범으로 삼아, 이 신자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공동체는 기쁨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관리인직은 복음주의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다. 자기중심적이며 다투는 사람들과 같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봅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가서 봅시다”라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올 것입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첫째로, 우리 이웃을 둘째로, 나는 마지막인 셋째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실한 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는 삶에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주신 선물에 대한 관리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알짊을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각자의 삶의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자, 잘 했구나. 충실하고 좋은 나의 종아. 이제 너의 주인의 기쁨안으로 들어 오거라” 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